이윤행 함평군수 민선 7기 첫 낙마…지역 단체장 희비 교차

5명 선거법·1명 강제추행 혐의 재판…2명은 검찰 수사 중
李군수 직위상실형 확정…목포시장·강진군수는 기사회생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이윤행 함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 형이 확정되면서 광주·전남에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현직 단체장은 이 군수를 포함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군수는 지난 1월3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당내 경선 전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천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안도한 단체장들도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도 경선 전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외에 다른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단체장들도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17년 11월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이 조사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 역시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중 1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승지 기자

광주경찰 '수영대회' 경비 사전점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수영대회 관계자와 경비과장 등과 함께 경기장과 선수촌 등을 방문,경비안전 활동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본격화

학습·놀이·공감교육, 병원 동행, 위급상황 대응 등 서비스

광주시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일·가정 양립 사업의 하나로 '2019년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에서 맡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사업은 청년여성이 돌봄 사각지대의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멘토 역할을 할 지역 청년여성 40명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아동 110여 명, 돌봄 서비스 제공 거점기관으로 작은도서관 7곳을 선정했다.

서구 우리동네무늬만학교주민협의회(062-351-0071), 남구 숲속작은도서관(062-651-5696), 남구 빛고을남구허브사이트주민협의회(062-655-5803), 북구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062-433-1279), 북구 복지애숲작은도서관(062-418-0988), 광산구 도깨비어린이도서관(062-962-1279), 광산구 지혜의샘작은도서관(062-973-1191) 등이다.

돌봄 서비스는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평일 1회 식사 ▲자녀의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이 제공되며, 참여아동 1인당 자부담 비용은 월 3만원이다.

특히 상해보험에도 가입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 아동은 소재지 지정도서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원 발생 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청년멘토 및 작은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 아동 성희롱 예방, 안전 등을 교육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062-431-6339)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여성들은 일자리와 사회적가치 실현 기회를 얻고, 워킹맘은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며 "참여아동에게 학습과 놀이 서비스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마을단위 돌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 국비 확보 성과

명품도시건축 정책 '아트도시 광주' 탄력

광주시는 30일 국토교통부의 2019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과 교육·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제도 조기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체성이 반영된 완성도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광주다움을 도시공간에서 실현하기 위한 명품도시건축정책 '아트도시 광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 위촉된 함인선 광주 총괄건축가가 '아트도시 광주'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5월1일 이용섭 시장과 광주생태마을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 총괄건축가는 군공항이전 신도시 조성, 광주대표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광주건축기본계획,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계획,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설계 가이드 라인 수립과 같은 계획에 대해 6차례 총괄조정·자문을 실시하며 국비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다이 기자

'비위 의혹' 광주시 노동협력관 4개월 만에 사의

개방형 직위인 하희섭 광주시 노동협력관(4급)이 임명된 뒤 4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광주시는 30일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주 병가를 낸 하 협력관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협력관이 사표를 낸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4개월 만이다.

광주시의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시 감사위원회에 하 협력관의 비위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표를 낸 경위에 의문이 제기됐다.

하 협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그는 2016년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에서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범 기자